

2008년 8월 1일 말씀

내가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더니 굉장히 많은 외국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줘야합니다.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잘 해주는것도 거북스러워 하니까 잘 보고 대해 줘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본 지도자들은 잘 압니다. 행사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신경써줘야 합니다. 우리 것이 좋다고 우리 한국식으로만 음식을 대접하면 외국 회원은 아무 말도 안하고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뽕 사먹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토스토 같은 것도 구워서 주고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하는 곳이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던데 내가 그전에 유럽에서 축구 대회 할 때 약을 꼭 준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꼭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니까 운동 끝나면 간호사가 꼭 치료를 해줘야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꼭 해줘야 합니다. 다치는 사람들 보호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십시오. 답답해 하니까 통역도 잘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통역관도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회원들은 뭘 모르니까 알아서 여러 가지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음식도 신경 써야 하지만 잠자리도 신경 써 줘야 합니다. 외국회원들은 처음에 와서 기계적으로 착착착 순서 있게 안 해주면 굉장히 거시기해 합니다. 그러니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 회원들도 자기네 식으로 우리를 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외국식으로 대해 줘야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한국식으로 바꾸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식으로 하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한 번 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 시간을 모두 허용하면 나는 자야 하는데 잠을 한 숨도 못 잔다.’ 이렇게 내가 외국회원들에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항상 잘 하는 사람은 미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처진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지도자들이 잘 모릅니다. 무조건 예수님처럼 양 백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우리 섭리 사의 목회자들은 양이 백 마리가 나갔는데도 안 찾습니다. 이건 너무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오 백 명, 몇 백 명씩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할 때는 확 확 하는데 안 할 땐 안 합니다.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못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목회의 표상은 ‘얼마나 전도가 되었나’ 와 ‘얼마나 나가는 사람이 없게 했나’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회 한번 나올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나오지 그냥은 못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산에서 오는 것보다 영국에서 오는 것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목숨을 걸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면 밤

도 낮도 없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신입생들은 내가 해외에 오래 나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엄청난 분을 내가 볼 수 있냐 하면서 궁금해 합니다. 말씀을 배웠기에 나를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신입생들은 지도자 말 잘 듣고 열심히 잘 하십시오.

중고등부 지도자들은 앞에서 확확 끌고 나가면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과거를 쳐다보면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현재 써먹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 지도자라서 과거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워야 내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배울 때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배워서 그런 식(하나님 뜻)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온다고 맨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성경을 저렇게 해석 하냐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 온다고 3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만인을 위해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야 원 뜻이지 또 살아나서 다니냐고. 빛을 값아 졌으면 또 돈을 떼어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란 목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배우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단체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 기도해서 자기가 과거에 느끼고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통해 현실을 다스리십시오. 자기가 깨닫고 느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남들이 하는 것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춤도 노래도 그렇습니다. 다 배워서 나타나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안 배우고 실력 없으면 절대 쓰여 질 수가 없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가 진찰하다가 사람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잠언이 있습니다. ‘그릇은 다 각각이다’ 라고.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힘 있게 잘 해나가십시오. 기분에 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못 날지 않습니까? 주일말씀 뽑아서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2천번 이상 봤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나게 열심히 싸우지 말고 섭리를 뒤십시오.